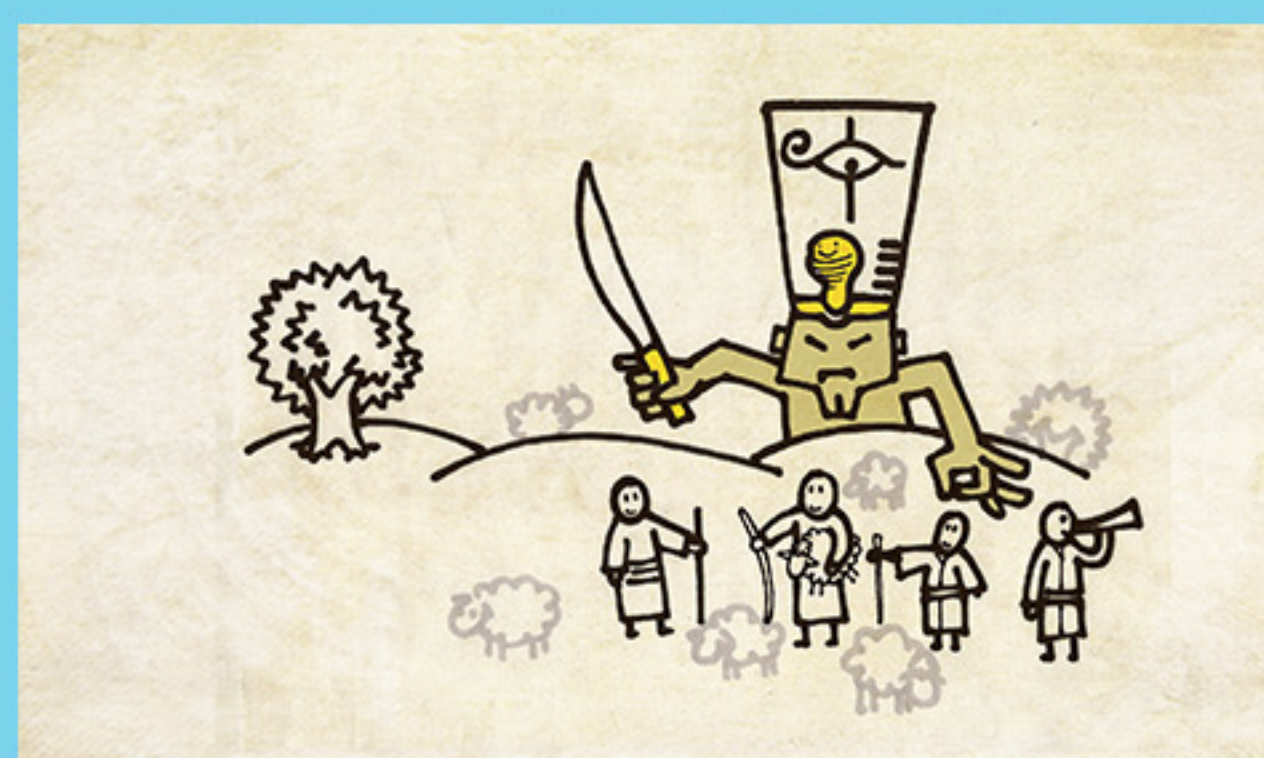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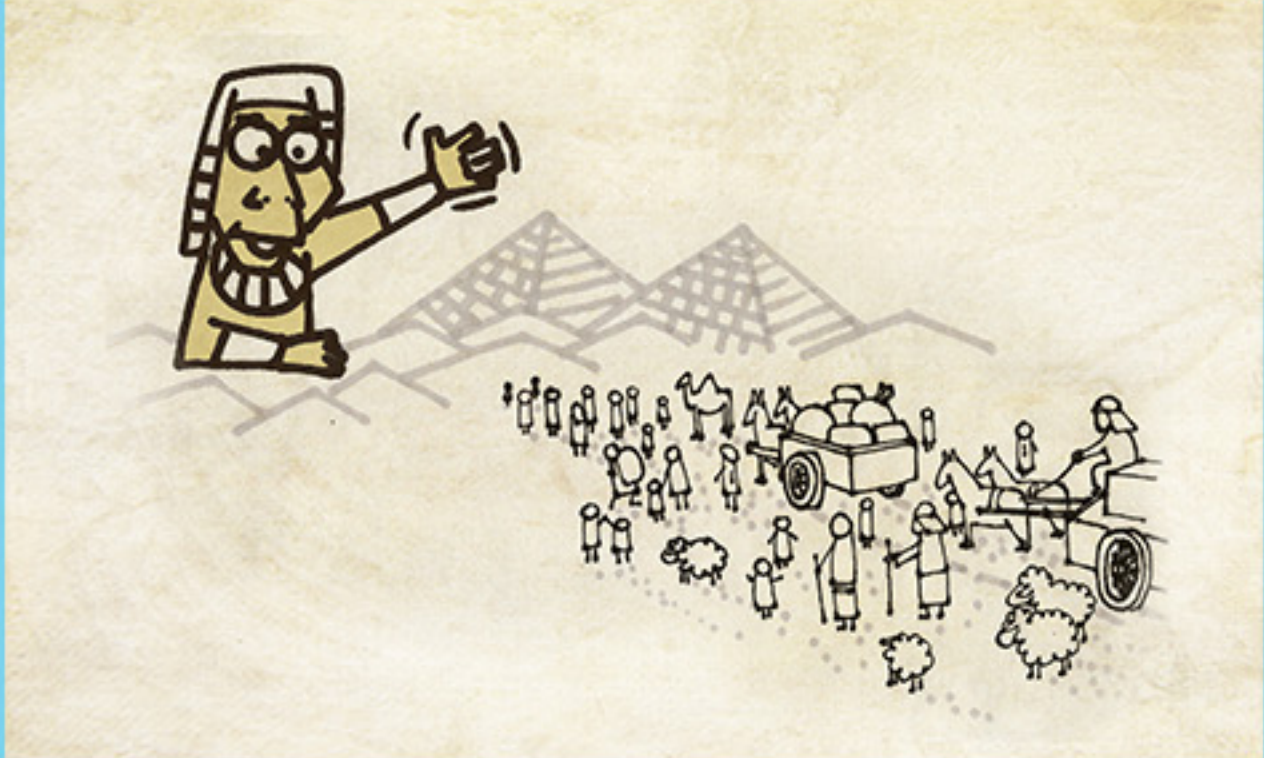


노예! 이스라엘!



나레이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1 야 지금부터 너희들은 요셉패밀리라고 부를게~ 요셉패밀리~ 뭐 하고 싶어?

요셉패밀리 어.. 저희들은 양들을 돌보며 살면 좋겠는데..

바로왕1 야~ 당장 대관령으로 보내!

나레이션 요셉패밀리는 왕이 선물한 땅에서 자신들의 양과 가축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셉패밀리 아이고 우리 양순이 예쁘다! 우리 양양 귀엽기도 하지~

양 찢 어차피 잡아먹을거면서...

나레이션 시간이 흘러 야곱과 요셉 모두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후손들이 부모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후손 영차! 영차! 영차!

나레이션 그러던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전쟁이다! 피해!

나레이션 그 결과 요셉패밀리에게 따뜻하고 너그러웠던 파라오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조, 딱딱하고 무식하기로 소문난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패밀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셉패밀리의 숫자가 늘어나

혹시라도 자신을 공격하게 될까봐 엄청 두려웠습니다.

바로왕2 그놈들 숫자가 늘어나 혹시라도 나한테 덤비면 어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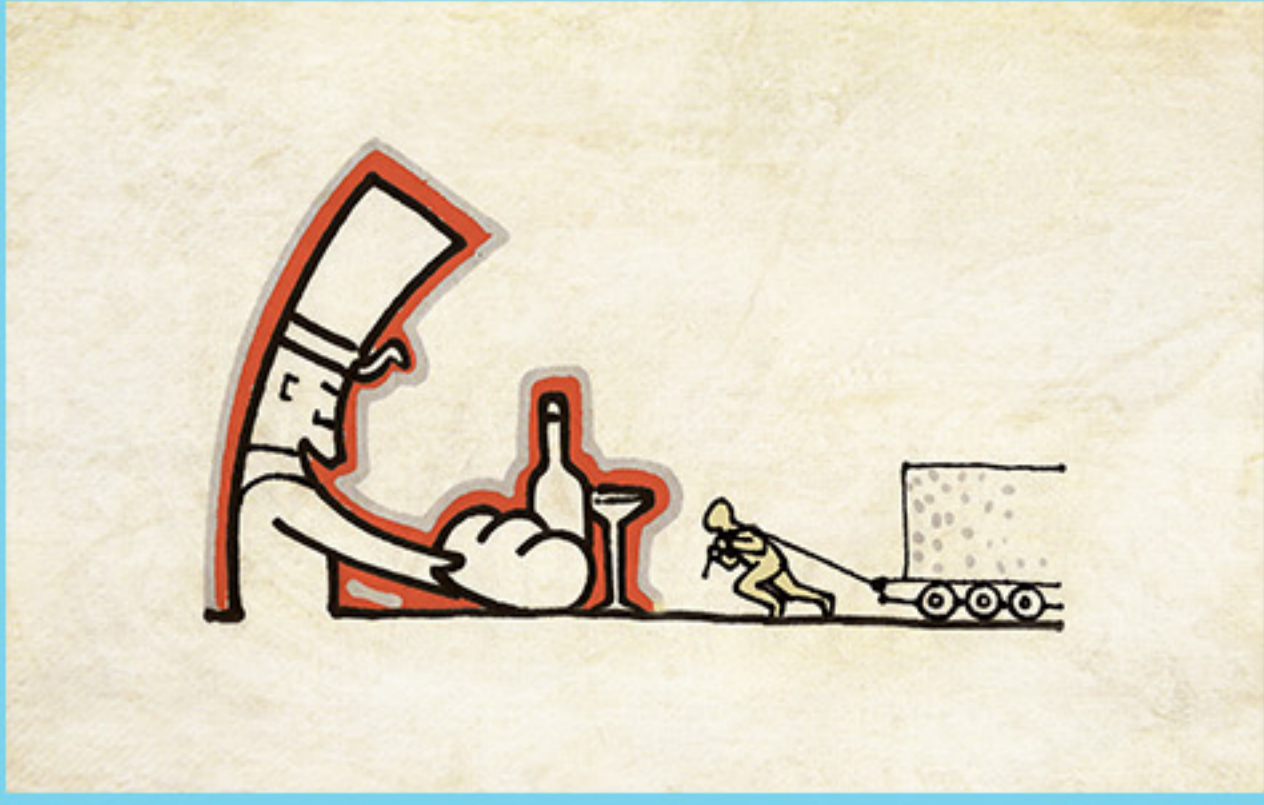
나레이션 애굽왕은 요셉패밀리를 노예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땅과 양들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려면 이번에 나라에서 새로 건축하는 애굽왕의 화장실 건축현장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왕2 땅과 양을 내놔라. 먹을게 필요하면 건설현장에서 일해!

나레이션 요셉패밀리는 당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건축현장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패밀리 영차! 영차! 아이고 힘들다.... 영차! 영차!



나레이션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요셉패밀리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되었고 결국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패밀리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왕의 화장실이나 만들고 있고.. 흑흑 안하면 어쩌냐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 아이들 밥도 못 먹을건데, 해야지!

나레이션 요셉패밀리에게 애굽은 더 이상 그들에게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싶었지만 이제 노예가 되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요셉패밀리들에게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왕2 피곤하지? 사는게 다 그렇지 뭐~ 이정도면 괜찮은거야~

나레이션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왕은 요셉패밀리의 남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바로왕2 남자 아이 씨를 말려!

나레이션 요셉패밀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슬퍼하기만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은 점점 죽어갔고 눈물이 끊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위대한 출애굽여행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